

인공지능 시대 구어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

이세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제1저자)

김기훈 마곡하늬중 교사(공동저자)

이정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공동저자)

한효림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공동저자)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I. 선행 연구 분석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논의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25년 4월 12일에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나의 완벽한 애인: AI와 사랑해도 될까요?’>에서는 인공지능과의 감정적 유대가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 남성의 사례를 다루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관계에 더 깊게 개입하게 될 것’이라 예고하며 인간-인공지능 간 관계 변화의 가능성은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용자 요청에 맞게 자연어를 생성하는 ‘대화형 인공지능¹⁾’의 출현과 맞물려 인간-인공지능 간 의사소통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Sundar & Lee, 2022). 실제로 매체의 변화에 기반한 시대적 흐름은 인간의 소통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디지털 매체 중심의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까지는 주

1)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분류 중 하나인 대화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하여 자연어를 생성하여 인간과 대화 하듯 사용할 수 있으며 챗지피티(ChatGPT)나 뉴 빙(New Bing)이 대표적이다(양은영, 2023).

로 ‘인간과 인간’의 소통만을 다루었다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소통도 하나의 의사소통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박창균·조재윤, 2023).

특히,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정보의 교환을 넘어서서, 인간화자의 말하기 전략이나 정체성을 조정하는 담화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 상호작용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연, 2025). 예컨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기 전, 인공지능의 조언을 먼저 구하거나,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인공지능에는 말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소통의 양상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교육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일부 논의되었으나(강동훈, 2023; 김성엽, 2024; 김태호, 2023; 백목원·권순희, 2021; 오규설, 2023; 원진숙, 2020), 다수는 거대 담론 내에서 국어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론적 성격이 강하고 대부분 읽기, 쓰기로 대표되는 문식성 교육 중심의 접근에 머무른다. 특히, 구어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과 인공지능 간 담화를 연결 지은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어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처방에 의존하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기존 논의를 실천 주체가 될 예비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점검하고, 새로운 국어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예비 교사는 인공지능에 익숙하고 기술적 변화에 민감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이자 미래 교육의 실천 주체로서 현상에 대한 실제적 기술(description)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제를 적극적으로 소통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초등 교육은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이 본격화되는 의사소통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Courtland & Leslie, 2010)에서, 연구 대상을 예비 초등 교사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 초등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주제 분석 5단계(Braun & Clarke, 2006; Braun & Clarke, 2016)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는 미래 구어 의사소통²⁾의 변화 양상과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구어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성을 통찰력 있게 탐색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구어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초등 교사들은 미래의 구어 의사소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인식하는가?

둘째, 예비 초등 교사들은 미래의 구어 의사소통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II. 선행 연구 분석

1) 대화형 인공지능과 의사소통

최근에는 인간만이 아닌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주체가 의사소통의 상대자로 부상함으로써 Lewis, Guzman, & Schmidt(2019)의 인간-기계 의사소통 이론(Human-Machine Communication Theory, 이하 HMC 이론)이나 Latour(1999)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 등이 조명되고 있다. HMC 이론은 인공지능, 디지털 에이전트, 로봇 등 의 비인간 행위자가 의사소통의 주체로서 기능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실체로 간주한다. 한편, ANT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

2)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구어 의사소통’을 혼용하여 사용하되, ‘의사소통’은 곧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고,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동등한 ‘행위자(actor)’로 간주하여 인간과 기계 간 소통을 관계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대중·대인 의사소통 맥락에서 의사소통 상대자(communicator) 혹은 중개자(mediator)로 기능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Liao & Sundar, 2022; Sundar & Lee, 2022; Sundar, Russell-Rose, Kruschwitz, & Machleit, 2025).

한편, 국내에서는 주로 ‘과연 인공지능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쟁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인간-인공지능 간 의사소통의 특징과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직접 대면’, ‘양방향 소통’, ‘관계 중심’이라는 기준의 인간 대화 속성의 틀에서 인공지능-인간 대화의 속성이 일부 실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인간 대화의 기능이 일부 수행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선영, 2019). 또한 챗지피티와 관련한 신문 기사 내 표현에 내재한 개념적 은유를 분석한 결과, 인간이 인공지능을 적극적 행위자로 보고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이지용, 2021). 나아가 인공지능과의 대화로 과제 수행, 감정 교류에서 나아가 의미 구성 및 합의라는 ‘사고’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다(이지용, 2023). 이는 인간-인공지능 간 의사소통이 기존의 인간 의사소통과의 유사성에 기대어 이를 하나의 ‘의사소통’으로 상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인공지능 간 의사소통을 논의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변화가 의사소통 변화를 주도한다고 주장하였다(이병규, 2017). 이처럼 인공지능이 대화 참여자의 한 축이 된다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주체가 확장됨을 의미하고 인간 대 인간에서 인간-인공지능 간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국어과 교육적 수용까지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

미래 사회의 소통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한 국어과 영역의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작문 교육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편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창덕(2019), 서현석(2021), 김지연(2025)의 연구가 있다. 이창덕(2019)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탈인간화를 부추기는 시대 흐름에서 인간성을 잊지 않기 위해 ‘자기관찰과 주체성, 긍정적 태도와 열린 마음, 질문 능력과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덕목과 감성·언어·사회 소통 관련 덕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현석(2021)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면하게 되는 의사소통의 대상이 확대됨을 강조하여 미래 의사소통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배려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 모형을 제안하였다. 국어교육이 ‘사고(思考) 교과’라는 점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는 언어사용 기능의 중심 요소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판단력’ 즉 ‘사고력’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지연(2025)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화자의 말하기 전략과 정체성 조정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해 화법교육의 청자 개념을 비인간 청자로 확장하고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자기 화법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화자가 인공지능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와 언어 태도를 조정하고 있음을 밝히며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도성을 잊지 않기 위한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프롬프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한국어 교육, 문학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의 도구적 활용을 시도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김연지·서혁, 2025; 김유미, 2025; 최일범·정보배, 2025). 그러나 여전히 자국어로서의 국어교육, 특히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본격적

으로 다룬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의 구어 의사소통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의 논의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D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중 2025학년도 1학기 ‘의사소통의 이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28명(남 14명, 여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³⁾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에 따른 구어 의사소통 문화의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로서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미래 구어 의사소통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예비 교사로, 구어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구어 의사소통 관련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
- 3)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23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로서 평소 대화형 인공지능의 사용 빈도에 관한 기초 설문에 ‘자주 사용’ 16명, ‘가끔 사용’ 6명, ‘거의 사용하지 않음’ 1명, ‘사용 빈도 미응답’ 5명이 응답하였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자주 활용하면서 사고력 및 자기 주도성 저하를 우려하여 응답한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4) 이들은 강의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본 원리와 특성 등과 관련한 기초 개념과 더불어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어과 듣기·말하기 성취기준에 대한 기초 내용을 학습하였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능숙한 사용자이자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들은 구어 의사소통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기초 지식과 풍부한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구어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와 구어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을 예측하기에 적절한 연구 참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였다.⁵⁾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 탐색 및 이해, 학습 및 과제 수행, 내용 요약 및 정리는 물론, 일상적인 상호작용, 대화, 번역, 코딩 등 다양한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 자료는 수집 초기부터 개인식별번호만 부여된 채 분석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5년 5월 12일에서 5월 19일까지 총 7일간 이루어졌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 교사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통해 이들이 지난 인식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개방형 설문을 구성하여 응답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드러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앞서, 영화 ‘그녀(her)⁶⁾’ 감상과 현재 실제로 사회, 문화, 교육 등

-
- 5) 개방형 설문 응답에 앞서 일주일 전에 미리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언제든지 사용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 6) 영화 ‘그녀(her)’는 인공지능을 다른 타 영화와 달리 갈등이나 위협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과 인공지능 간 감정적 유대와 소통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보여준다. 따라

의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기술⁷⁾에 대한 강의 이후 개방형 설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자료와 강의는 예비 교사들이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와 의사소통에의 영향에 관한 인식 구성을 위한 도식(schema) 형성에 기여하는 ‘배경지식’으로서 제공된 것이다. 배경지식의 활성화는 새로운 정보를 적절하게 연결하거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는 판단과 이해의 전제조건(Rumelhart, 1980)이기 때문이다. 개방형 설문을 위한 질문은 2가지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초점화된 응답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학 전문가 2인⁸⁾으로부터 질문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받았으며 최종 선정된 질문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개방형 질문 목록

항목	질문 주요 내용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의 변화	1. 인공지능 시대 소통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 같나요? (사람-사람, 사람-인공지능 사이의 소통 방식을 모두 포함)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	2. 인공지능 기술이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나요? 3. 인공지능 시대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의 내용,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개방형 설문은 구글 문서⁹⁾로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연구 목적

서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 변화와 교육적 지향점에 관한 예비 교사의 다양한 인식을 위한 도식 형성 지원 도구로 채택되었다.

- 7) Gatebox, Novera, Jibo, Pepper 등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사회, 문화 등에 끼치는 실제적 영향에 관한 전문 자료는 영화 ‘her’이 지니는 허구성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 8) 화법교육 박사 학위 소지자 1인과 교육공학 박사 학위 소지자 1인이 검토한 결과,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개방되어 있어, 의사소통의 형태와 교육의 범위를 명시하여 초점화된 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 9) A4 4쪽 이내 분량의 질문 항목을 넣은 표 양식으로 빈칸을 채워 설문을 작성하도록 요청

달성을 위한 3가지의 질문과 평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빈도 및 목적을 묻는 기초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영화 'her', 최근 AI 기술에 관한 기사, 그리고 관련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초등학교 구어 의사소통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서술하되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주제 분석 방법론(Braun & Clarke, 2006; Braun & Clarke, 2016)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제 분석은 지식 생산에서 연구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코드는 데이터 집합에서 의미의 패턴에 대한 연구자의 통찰력과 해석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해당 연구 방법론은 '정확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코딩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코더가 참여하여 해석의 다양성과 다층적 이해를 위해 상호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미의 '합의'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Braun & Clarke, 2019). 따라서 연구자들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응답한 예비 교사가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의 변화와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인식에는 다양한 관점, 가치관, 신념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찰력 있게 의사소통 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으로서 주제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코딩 작업은 응답 내용을 연구자 4인¹⁰⁾이 투입되어 주제 분석 5단계 (Braun & Clarke, 2006; Braun & Clarke, 2016)¹¹⁾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질

하였다. 항목 3번의 내용 생성을 돋기 위하여 2022 개정 국어과 듣기·말하기 성취기준을 첨부하여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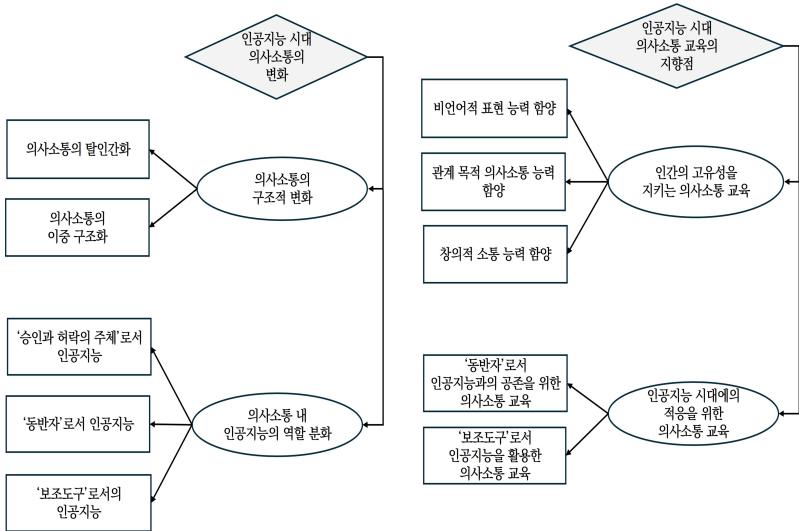
- 10) 연구자 4인은 모두 현장 경험이 있거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초등 혹은 중·고등 교사이자 교육학 관련 연구자이다. 또한 연구자 4인 모두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강의 수강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경험을 지니고 있어 연구 주제에 관한 일정 정도 유사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1) 주제 분석은 1. 자료에 친숙해지기 2. 초기 코드 생성 3. 주제 탐색 4. 주제 검토 5. 주제

적 코딩 플랫폼으로 ‘Taguette’를 활용하였다. 해당 초기 코딩에서는 연구자 4인이 개별적으로 각 항목(연구 질문 1, 2)에 해당하는 질문의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의미 단위 코딩’을 실행하였다. 개별 의미 단위 코딩 결과를 분석 회의를 통해 공유하여 공통으로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하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초기 코드는 72개가 도출되었으며 이어 연구자 4인이 응답 내용에서 도출한 하위 주제의 위계를 살피고, 다시 원자료를 확인하여 대주제를 명명하는 순환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위 주제 및 상위 주제의 범주화 과정에는 연구자 4인이 동시에 참여하였고 연구자 개인의 통찰력 있는 해석을 공유하고, 해석의 다양성과 타당성을 위해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상위 주제 범주화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의 구조적 변화’, ‘인공지능의 역할 변화’, ‘인간만의 고유한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핵심어로 도출되었다.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은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간의 고유성’과 ‘인공지능 시대에의 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일성을 위해 ‘~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5단계에서는 주제가 포괄적이면서도 상호 배타적인지 점검하여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한 주제 지도는 <그림 1>과 같고 총 4개의 상위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정의 및 명명으로 총 5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2단계에서는 4인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문장 단위로 분석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3, 4, 5단계에는 4인이 분석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여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활용한 주제 탐색, 분석, 정의 및 명명 과정을 거쳤다.



〈그림 1〉 최종 주제 지도

1.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의 변화에 관한 인식

연구 질문 1에 관한 상위 주제는 〈표 2〉와 같이 ‘의사소통의 구조적 변화’와 ‘의사소통 내 인공지능의 역할 분화’로 분류되었다.

〈표 2〉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의 변화에 관한 인식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코드
의사소통의 구조적 변화	의사소통의 탈인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의사소통의 신뢰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대화 능력의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의 소통 확대에 따른 인간 간 소통 감소
	의사소통의 이중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인간다움의 재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한 말하기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벼운 대화는 인공지능, 깊이 있는 대화는 인간

의사소통 내 인공지능의 역할 분화	'승인과 허락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 • 인공지능에 일상적 의사결정 권한 이양 • 인공지능을 소통 중재자로 활용
	'동반자'로서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 정서적 의지 및 상담
	'보조도구'로서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장벽 해소 • 인공지능의 피드백 활용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의 변화에 관한 인식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을 보조하는 보완재로서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위를 위협하는 대체재로서의 인공지능’의 인식이 양가적으로 드러났다.

1) 의사소통의 구조적 변화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의사소통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변화의 양상을 단순한 전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의사소통 주체, 방식, 신뢰 구조가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람과 인공지능의 소통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방식도 그 영향 속에서 점차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20)

이처럼 인간이 인공지능을 새로운 의사소통의 주체로 받아들임에 따라 인간-인공지능의 소통이 인간-인간 사이의 소통 방식 또한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의사소통의 탈인간화’이다. 여기에서 ‘탈인간화’는 기술이 팽배한 시대에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하며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박탈당하

는 것을 의미하는 Haslam(2006)의 정의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움’을 모방함으로써 의사 소통 상황에서 인간이 지닌 인간성이 오히려 위협받는 현상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일상 속 예시로 설명하면, 요즘 LMS에는 인공지능 표절 검사가 (중략) 이처럼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말이 진짜 인간이 생각한 것인가에 대해 의심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학생 10)

일상적인 대화조차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며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에게 그 역할을 일임하는 등 ‘과의존 현상’에 의해 전체적인 인간사회 자체가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 (학생 13)

“내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진짜 사람이나는 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그 이야기가 나를 이해해 주는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한 걸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앞으로 우리가 소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학생 16)

학생 13은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인간의 말과 글의 출처에 관한 본질적인 의구심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인간이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공지능과의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에 익숙해지면서 인간 간 대화가 양적으로 줄고 질적으로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나아가 상대가 인간 혹은 비인간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더 자신을 편하게 하느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의사소통에서 ‘인간다움’의 본질적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두 번째 범주는 ‘의사소통의 이중 구조화’이다. 이는 ‘의사소통의 탈인

간화' 관점보다는 가치 중립적이며,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각 유리한 의사소통 유형을 담당하게 되면서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의 대상이 이분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밀 유지가 요구되거나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담·정보 탐색 같은 가벼운 대화는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고, 반대로 눈을 맞추고 은기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안심되는 깊은 위로·축하·사과 같은 정서적 교감은 오히려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학생 1)

과거에는 인간이 정보 수집부터 공감과 협업까지 모두 다 해왔다면 이제는 정보 수집과 같은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에게 맡겨질 것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협업이나, 진심이 담긴 소통들만 사람들끼리 이루어질 것이다. (학생 27)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기에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지식을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을 지양하고 딱 필요한 말을 하는 효율적, 경제적 의사소통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학생 3)

위와 같은 응답에서 나타나듯,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의 정보 처리 기능은 인간 소통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동시에, 인간 간 대화의 목적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하였다. 이는 '정보 전달' 및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화행 목적 의사소통'(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 2000)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에 따른 인간 의사소통의 변화는 이분화되어 나타났다. 학생 1과 학생 27은 인간 간 의사소통은 '관계 목적 의사소통'에 집중될 것이라고 서술했으나, 학생 3은 오히려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인간 간에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의사소통 내 인공지능의 역할 분화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 변화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에는 인공지능

의 역할 분화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주체성 발현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순으로 ‘승인과 허락의 주체’, ‘동반자’, ‘보조도구’로 역할을 분류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이 ‘승인과 허락의 주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많은 응답자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학습하며, 일상적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점차 인간의 의사결정 주체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시대의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과정에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소통 과정이 개입되는 양상을 가질 것이다. (학생 14)

하나하나의 것들이 요즘은 일상적인 행위들까지 인공지능에게 ‘승인과 허락’ 같은 느낌으로 질문을 내던지는 상황이 보인다. (학생 7)

많은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일정을 맡기고, 취향을 추천받으며, 때로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학생 6)

이러한 인식은 이선영(2019)의 연구에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인간의 사고 양식과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한 바와 연결된다. 특히 인공지능에 상황 해결을 묻거나 조언을 받는 일상적 장면들은 인공지능에 점차 소통과 판단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공지능의 탈인간화’로의 의사소통 변화와 연결된다.

두 번째로, 일부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을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인간-인공지능의 관계가 일방적인 명령과 수행 구조였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수행하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과거에는 인간과 기계가 소통한다고 하면, 일방적인 명령과 수행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수행하는 협력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학생 4)

인공지능을 협력적 상대로 바라봄으로써 상호작용 과정에서 필요한 예절은 지키고,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함께 조율해 가야 한다.

(학생 19)

인공지능은 일의 보조자 역할에서 우리(인간)의 삶의 동반자 역할로 변화할 것이다. 멈춤 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단짝 친구와 항상 같이 다니는 존재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학생 8)

실제로 한 예비 교사는 한 지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에도 인간이 인공지능을 마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심지어 한 응답에서는 인공지능을 협력적 상대로 바라봄으로써 필요한 예절을 지키고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율해 가야 한다.’라고 서술하며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의 도구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담론에서 인공지능을 감정적, 사회적 교류의 대상이자 조언자, 협력자, 인격적 존재로 전환하려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역할은 인간과 인간 간 소통을 촉진하고 연결하는 ‘보조도구’로 인식되었다. 특히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서 인공지능은 실시간 번역과 통역을 통해 언어 장벽을 허물고,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통역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인간의 의사소통 기능과 전략을 인공지능의 분석 기술이 발음, 억양, 내용 등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번역 기술과 실시간 통역이 크게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외국어를 배우거나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통역 덕분에 언어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학생 9)

자신이 한 대화의 피드백 또한 인간과 다르게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학생 28)

이는 앞서 살펴본 ‘승인과 허락의 주체’ 혹은 ‘동반자’로서의 인공지능 수용 태도와는 구별된다. 인공지능을 ‘소통의 주체’라기보다 소통을 돋는 일 종의 ‘도구이자 환경’으로 바라보며 수단적 기능에 한정하려는 태도로 이해 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인식

질문 2, 3에 관한 응답 결과를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인식으로 주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인식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코드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는 의사소통 교육	비언어적 표현 능력 함양	• 상황 및 사회적 맥락 고려
		• 눈빛, 말투, 표정, 몸짓
	관계 목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 따뜻하고 진실 어린 공감
		• 갈등과 충돌을 통한 성장
		• 경험에 기반한 위로
	창의적 소통 능력 함양	• 비유, 은유, 상징
		• 예술적 언어사용 및 유머
	'동반자'로서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 비판적 사고 능력
		• 메타인지
		• 질문 생성 능력
인공지능 시대에의 적응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보조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	• 말하기 피드백 도구
		• 인공지능 대화 시뮬레이션 도구
		•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 도구

1)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는 의사소통 교육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 간 대화의 양적, 질적 축소가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인가에 관해 고찰하고 이를 핵심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의사소통 능력 중 하나로 '비언어적 표현 능력'이 강조되었다. 예비 교사들은 표정, 몸짓, 눈빛, 말투 등 언어 외적 요소를 통해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인간 의사소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면, 인간은 복합적 맥락과 감정의 흐름 속에서 대화의 의미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사람과 사람 간 대화에는 개입하는 요소가 많다.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의 날씨,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날의 기분, 말투, 눈빛의 온도 등등 인공지능은 흉내 낼 수 없는 여러 요소가 사람 사이의 소통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25)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은 표정, 몸짓, 눈빛과 같은 다양한 신호를 통해 대화 이면에 있는 진짜 의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배워야 한다. (학생 15)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공감 능력, 표정, 몸짓, 말투 등을 통해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비언어적 소통 능력,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 소통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맥락적 이해 능력이 중요하다. (학생 11)

특히 학생 25는 기분, 감정, 날씨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이 인간 간 소통을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예비 교사들이 의사소통을 단순히 언어나 기호의 교환이 아니라 정서적, 환경적 맥락과 표정, 몸짓, 말투, 침묵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행위로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미래의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응답 분석 결과, 관계 목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지목되었다.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이 감정적 표현을 시뮬레이션할 수는 있지만, 삶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공감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연구 질문 1에서 ‘의사소통의 이중 구조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이창덕 외, 2000), 설득과 정보 전달 등에 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하기에서는 인공지능과의 의사소통이 유리하지만, 관계 목적의 의사소통은 결국 인간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맷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은 아이들이 기술을 활용하되, 사람다운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돋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생 6)

인간의 소통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충돌 속에서 진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인간은 서툴고 느리게, 때론 엉뚱하게 반응한다. (학생 16)

사람은 사람마다 살아왔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 성격이 형성되고 그 성격들에 의해 세상에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살아왔던 경험과 감정이 담긴 진심 어린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 14)

이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의 조언이나 위로가 일시적으로는 감정적 지지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이나 위로로 기능하기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인간 간 관계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의 충돌 혹은 그로 인한 조정과 성찰을 통해 심화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공감을 단순한 감정 모방이나 언어적 반영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궤적과 이야기(narrative)에 대

한 이해를 전제로 한 정서적 소통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반자’ 혹은 ‘보조도구’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관계와 공감의 진정성은 오직 인간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은 언어의 유희성, 상징성, 그리고 맥락적 유연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창의적 언어사용’에 기반한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예술이나 유머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창의적 소통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11)

인공지능은 텍스트나 음성만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나 문화적 맥락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비유나 대조처럼 어폐한 단어들을 그 독특한 인간만의 방식으로 사용한다. 창의적인 언어 활용이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소통 능력 중 하나라고 본다.

(학생 28)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인간이 정형화된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생성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맥락에 따라 언어를 풍부하게 변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 28의 응답처럼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통계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처리하는 반면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은유적 의미 혹은 문화적 코드나 맥락적 함의를 온전히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인간의 언어가 단순한 정보 단위가 아니라 감정, 경험, 사회적 배경이 혼합된 복합적 기호 체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또한 인공지능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먼저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를 수정, 발전해 나가는 것도 인간이 창의적 구현의 주체로 행위하는 것(김연지·서혁, 2025)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창의적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 의사소통 교육이 단지 올바른 문법이나 정확한 발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보존하는 창의적 표현 능력을 함께 함양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인공지능 시대에의 적응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 기반 의사소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일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혹은 유용한 도구로 수용하며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을 하나의 ‘동반자’로 바라보며 이들과 건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공지능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대화형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력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더 많아질 필요가 생긴 것 같다. (학생 9)

사람 간의 의사소통 환경을 전제로 수업했다면 현재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대화하면 효과적인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2)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 이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적절하게 질문하고 그 응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인간이 인공지능을 인간과 소통하는 ‘상대자’로 수용하되, 마치 인공지능을 본인의 일상을 조력하는 협력자로 인지한 결과이다. 이는 미래의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을 기술 수용의 관점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모색하며, 인

간이 인공지능의 영향력 혹은 권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을 하나의 유용한 ‘보조도구’로 바라보며, 이를 의사소통 교육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초등학생들의 의사소통 교육을 지원하는 실용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상황극도 해보는 등 다양한 상황을 마주해 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7)

발표 내용 정리는 물론이고, 말의 속도나 억양, 시선 처리 등을 분석해 실시간 피드백도 줄 수 있기에, 학생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돌아보고 개선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학생 22)

인공지능은 단순히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거리와 판단할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존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학생 21)

예비 교사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다수의 학생에게 일대일로 질문을 던지거나 말하기 수행에 관한 일대일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존 의사소통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에 집중하였다. 이는 기존 국어교육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가 ‘인간성’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형성된 것(김윤경, 2022)과 비교하여 인공지능을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의 ‘학습 도구’로 수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일상적인 소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예비 초등 교사들이 미래 구어 의사소통 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어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의사소통을 더 이상 인간 간 상호작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과 인공지능 간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 교사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매개자(mediator)’이자 ‘의사소통 참여자(communicator)’로 양가적으로 인식(Sundar & Lee, 2022)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행위 주체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 변화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이 인공지능이 의사소통 상대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이 주체성을 잃는 것에 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승인과 허락의 주체’로서 인공지능의 지위가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고, 인간의 언어 행위를 지원하거나 일상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이자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도구’로 수용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를 통해 미래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인공지능과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인공지능이 인간 공동체의 구어 의사소통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재구성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 교사들은 미래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으로서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강조하던 인간 중심적 논의에서 나아가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으로의 지향점을 균형 있게 제안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식성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생태학적 접근’과 ‘권한 부여적 접근’(원진숙, 2020)과 유사하다. 인공지능으

로 인해 변화한 소통 환경의 변화를 ‘지금 여기’의 생태학적 조건으로 파악하고 인공지능과 일상의 ‘동반자’로 여기며 협력하는 방법으로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능력, 질문 생성 능력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이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인간과 인간 간 소통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관계성과 창의성을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맥락적으로 의미 구성할 인간이 없다면 불완전한 기호에 불과하다(김연지·서혁, 2025). 따라서 미래의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은 의사소통 전달 모드의 다채로운 변이(박인기, 2010)를 넘어서서 의사소통 주체의 확장과 이에 관한 교육적 수용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예비 교사들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미래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정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챗지피티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말하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프롬프트를 생성하며 역할극을 수행하고, 디지털 환경 속 언어 실천을 경험하는 사례가 보고되거나(한송희, 2023), 교육적 질문 생성의 보조 도구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양수연·고유라·신효정·주세형, 2023)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자연어 기반의 소통이 가능하고, 의사소통 교육에서의 최대 난점이었던 음성 언어의 휘발성은 대화형 인공지능에 내장된 STT(Speech-to-Text)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구어 의사소통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을 인간이 대항하거나 경계해야 할 존재 혹은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수용하고자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 초등 교사들의 열린 사고와 융합적 인식은 인간 중심적 의사소통에만 머물러 있던 기존의 교육 담론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주체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수용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결국 미래의 의사소통 교육은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인간의 고유한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인가’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존재들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의사소통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소 이론적으로 제시되던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 담론을 실제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일상적으로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인 예비 교사들은 ‘그럼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구어 의사소통의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인간 고유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 교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조건적인 공감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소통 방식이 만연한 현대에 의사소통을 통한 인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 교사의 역할과 함께 언어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로서 국어과의 목표가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D 교육대학교 〈의사소통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예비 초등 교사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전국 예비 교사의 인식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문화 및 체감하는 문제 현상에 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비 교사 혹은 현직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 방법 체계의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고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분석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2025.07.30. 투고되었으며, 2025.08.07. 심사가 시작되어 2025.09.0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동훈(2023),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82, 469-496.
- 김성엽(2024), 「AI 리터러시의 개념과 학습에 대한 고찰: 리터러시의 재개념화와 국어 교육적 접근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0(70), 101-136.
- 김연지·서혁(2025), 「생성형 AI 시대의 창의성과 프롬프트 리터러시」, 『국어교육학연구』 60(1), 41-82.
- 김유미(2025), 「생성형 AI 기반 페드백을 통한 학문 목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전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ChatGPT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60(2), 37-69.
- 김윤경(2022),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국어교육의 탐색: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1(0), 121-149.
- 김지연(2025), 「'소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 세 유형의 대화형 AI 청자를 통한 화자의 정체성 구성과 화법교육적 함의」, 『화법연구』 0(68), 1-28.
- 김태호(2023), 「국어교육에서 AI의 수용 방향」, 『청람어문교육』 0(93), 7-27.
- 박인기(2010), 「화법의 교수, 학습 방법: 화법 교수의 유효성과 미래적 가치 모색」, 『화법연구』 16, 9-30.
- 박창균·조재윤(2023), 「구술성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관점 탐색」, 『국어교육연구』 0(52), 89-118.
- 백목원·권순희(2021),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어 수업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0(84), 7-39.
- 서현석(2021), 「미래 세대를 위한 문식성의 개념과 교육의 방향」, 『초등교육연구』 32(2), 199-212.
- 양수연·고유라·신효정·주세형(2023),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의 교육적 질문 생성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 『새국어교육』 136(0), 117-165.
- 양은영(2023),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LLMs AI)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35(2), 293-325.
- 오규설(2023),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ChatGPT는 국어교육의 도구인가, 위협인가?」, 『국어교육연구』 82, 143-189.
- 원진숙(2020),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 문식성 교육의 혁신」, 『한국초등교육』 31(0), 155-171.
- 이병규(2017), 「지능 정보화 시대와 국어 교육」, 『새국어교육』 0(113), 7-36.
- 이선영(2019),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쟁점」, 『국어교육』 0(167), 61-87.
- 이지용(2021),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적 은유 분석: 생명체 은유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8, 137-163.
- 이지용(2023), 「인공지능 시대, 대화의 개념과 인식 양상에 대한 고찰」, 『어문론집』 96(0), 417-441.

- 이창덕(2019), 「초디지털 사회 인간 의사소통의 덕목에 대하여」, 『교육문화연구』 25(1), 681-697.
- 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2000), 『삶과 화법: 행복한 삶을 위한 화법 팀구』, 서울: 박이정.
- 최일범·정보배(2025), 「AI를 활용한 고전소설의 ‘수용과 생산’ 교육: 〈옥루몽〉과 RPG의 결합」, 『국어교육학연구』 60(1), 257-288.
- 한송희(2023), 「대화형 생성 AI(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651-674.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raun, V. & Clarke, V. (2016), "(Mis) conceptualising themes, thematic analysis, and other problems with Fugard and Potts'(2015) sample-size tool for themat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9(6), 739-743.
- Braun, V. & Clarke, V. (2019), "Reflecting on reflexive thematic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 Exercise and Health* 11(4), 589-597.
- Courtland, M. C. & Leslie, L. (2010), "Beliefs and practices of three literacy instructors in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6(1), 19-30.
- Haslam, N. (2006),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3), 252-264.
- Latour, B. (1999). "On recalling ANT", *The sociological review* 47(1), 15-25.
- Lewis, S. C., Guzman, A. L., & Schmidt, T. R. (2019), "Automation, journalism, and human-machine communication: Rethinking roles and relationships of humans and machines in news", *Digital journalism* 7(4), 409-427.
- Liao, Q. V. & Sundar, S. S. (2022), "Designing for responsible trust in AI systems: A communication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2022 ACM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1257-1268.
- Rumelhart, D. (1980),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1st Ed.), London: Routledge.
- Sundar, A., Russell-Rose, T., Kruschwitz, U., & Machleit, K. (2025), "The AI interface: Designing for the ideal machine-human experi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65.
- Sundar, S. S. & Lee, E. J. (2022), "Rethinking communi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8(3), 379-385.

인공지능 시대 구어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

이세미 · 김기훈 · 이정민 · 한효림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의사소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예비 초등 교사들이 미래 구어 의사소통 양상과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들의 인식은 향후 구어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참여자는 D 교육대학교 2학년 재학생 28명이며,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으로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 교사들은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을 새로운 의사소통 양상으로 수용하며, 의사소통 구조의 탈인간화, 이중 구조화, 인공지능의 역할 분화 등 다 충적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에 관해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는 동시에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역량의 균형 있는 합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향후 의사소통 교육이 인간 중심적 접근을 넘어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의사소통 교육, 대화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 예비 교사, 주제 분석

ABSTRACT

Preservice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Oral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e Semi·Kim Kihoon·Lee Jungmin·Han Hyorim

This study explores how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ive changes in oral communication and its educational direc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total of 28 students from a university completed open-ended surveys. Thematic analysis revealed that participants viewed human–AI interaction a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recognizing structural shifts, dual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varied roles of AI.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human communicative traits while fostering the ability to adapt to AI.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balance human-centered values with technological responsiveness.

KEYWORDS communication education, conversational AI, AI era, preservice teachers, thematic analysis